

SAMC | LAW REVISION

1. 냉동 고추 및 뱀장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

2월 1일부터 냉동 고추와 뱀장어 2개 품목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되고, 냉동 옥돔, 비식용 냉동 멸치, 비식용 냉동 기름치, 비식용 꽃가루(화분) 등 4개 품목은 지정에서 해제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제2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냉동 고추, 뱀장어 등 2개 품목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한다.

[Read More](#)

2. 벼·멥쌀·참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 기준발동물량 축소

정부가 현행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인 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참쌀, 쇠미, 쌀가루 등 미곡류 16개 품목의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하고, 기준발동물량은 41만 7,271톤으로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 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한 것이다.

[Read More](#)

3. 농구화와 유사한 모양의 신발은 어느 호에 분류할까?

농구화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충격 흡수나 발목 보호 기능이 없는 신발은 어느 호에 분류해야 할까? 관세청은 지난해 열린 ‘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기타의 신발 등 6건의 수출입물품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전국 세관 등에 알렸다. 이번 품목분류에서는 농구화와 유사한 모양의 신발을 어느 호에 분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이들 물품은 관세율표 제6402호에 분류되며, 발목을 덮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세분류된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美 자동차 관세 표적은 자율주행·전기차? ACES 기술에만 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조치가 이른바 'ACES' 차량 기술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CES'는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fied), 공유(Shared) 등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일컫는다. 미국 무역전문매체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미국 상무부의 최신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초안에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으로 세 가지 선택지가 담겼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Read More](#)

2. 中, 706개 항목 잠정관세 추가 인하

중국이 잠정관세를 또 한 번 인하했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중국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국무원 비준을 받아 올 1월 1일부터 총 706개 상품의 수입 잠정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해 12월 26일 전했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 수입 잠정관세를 폐지할 예정이고, 1개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세율 적용범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크롬철 등 108개 수출상품에 적용하던 수출관세는 유지하고, 94개 수출 잠정세율은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ad More](#)

3. 한·페루 AEO MRA, 1월 1일부터 전면 이행

올 1월 1일부터 한·페루 AEO MRA가 전면 이행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페루에서 신속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2015년 8월 페루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17년 12월 최종 서명을 거쳐 올 1월 1일부터 전면 이행에 들어간다고 지난해 12월 28일 밝혔다. 그동안 양국은 AEO MRA 혜택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실무회의에서 AEO 화물인식 시스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MRA 혜택제공 절차를 논의해왔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英, 브렉시트 결국 '노딜'로 가나?

영국과 EU가 최종 합의한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선언 승인에 관한 영국 하원의 표결 결과가 부결됐다. KOTRA 런던무역관은 1월 17일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될 경우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대비상황을 분석·발표했다. 영국·EU 간 최종 합의안이 양국 의회 통과를 거쳐 EU 이사회 승인을 받을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 동안 對英 수출 시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지만, 노딜의 경우 오는 3월 29일 이후 對英 수출 시 한·EU FTA 적용이 불가하다.

[Read More](#)

2. '노 딜' 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3월까지 실질협약 마무리

우리 정부가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인 협의를 3월 말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차관급이 참여하는 고위급 경제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한·영 국장급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 "'노 딜'은 이른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컨틴전시 한·영 FTA'는 기존 한·EU FTA를 복제하는 수준에서 정리한 뒤 추후 재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d More](#)

3. 日-EU 거대 자유무역권 EPA 2월 1일 발효 "한국 車 수출에 영향"

일본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인 경제연대협정(EPA)이 2월 1일 발효된다. 일찌감치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일본도 유럽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됨에 따라 유럽에서 더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됐다. 협정 발효로 전체 교역 품목 중 EU로 수출되는 일본산 제품의 99%, 일본으로 수출되는 EU 제품의 94%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EPA는 관세의 철폐·인하 이외에도 비즈니스 규정, 지식재산권, 투자·서비스 등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현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는 유사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기준으로 비율과 구간을 표시하고 있으나, 해당 표시방법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당초 비교표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및 기준 방법을 일부 개정고시 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도안 변경, 표시 단위 당 나트륨 함량과 해당 구간에 색상(황색)을 이용 표시 등이다.

[Read More](#)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을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으로 정하고, 그 세부 절차 및 영업자 신규교육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Read More](#)

3.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를 위해 ‘기존화학물질’ 고시를 개정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당시 ‘관찰물질’로 지정된 물질 83종은 가목에서 삭제하고 나목으로 이관하고, 가목과 중복되는 41종은 나목에서 삭제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받은 추가 유해화학물질 148종을 추가하고,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도 기존화학물질로 보는 것으로 명시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